

아누스속의 성문화 읽기

서울대에서의 Rock공연은 80년대와 90년대 초를 대학에서 보낸 사람들이라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하나의 '사건'이었다. 그리고 어느해인가 연세대에서 '성정치 문화제'가 열렸을 때 기성 언론들은 대체의 막강한 힘을 빌려 개탄의 목소리를 높였었다.

도대체 가법기조차한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무슨 의도와 의미를 가지고 시작되는 것일까.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들을 반대학문화라고도 부른다. 반대학문화란 어느새 캠퍼스로 파고든 소비주의와 각종 이데올로기에 대한 저항이다. 민중가요의 전성기가 지나고 사회참여로 가득한 대중가요가 캠퍼스를 점령했을 때, 락은 그 대안 중의 하나로 시도되었다. 성정치 문화제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쩌들어 있는 대학인의 성관념에 대한 해방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가장 진보적인 집단이면서도 성에 관한 한은 어느 집단에 못지않은 보수성을 보여주는 대학은 그 자체로 이중적이다. 각종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나듯이 이제 대학인의 3분의 1 이상은 성경험을 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다. 이전의 정조관념은 이미 낡은 외투일 뿐이다. 이런 것만 본다면 대학인의 성의식은 상당히 개방적이다. 그러나 '개방적'이라는 낱말을 '진보'라는 것과 맞바꿀 수 있을까.

애석하게도 현실에서 우리의 대학은 아직도 총여학생회가 필요하고 여학생회장이 필요하다. 물론 총학생회장이라든가 당연히 남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인정받는 S대학 법학과 모교수님은 늘어나는 여학생 수를 보고 한마디 하셨다. "법학과가 망할 정도"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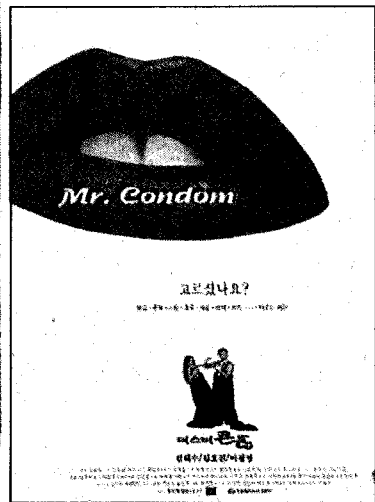
흔타해진 피는 수혈을 통해 걸러내야 한다면, 대학은 사회의 억압적인 의식과 인습이 변화해 가는 최전선이라 할 수 있다. 몸을 사고파는 왜곡된 성관념과 의식이 판을 치는 사회구조 속에서 대학은 새로운 여성과 남성의 관계, 그리고 건강한 성의식을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자리잡아야 하겠다. <문화부>



<그래픽: 한승우 편집위원>

□ 학생들의 성의식 들여다보기

성성안의 성城을 허물자



▲학생들은 늘상 성(性)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있다. 사진은 성에 대한 가치가 절실히 보여지는 몇몇의 영화들, 그리고 한 성인삽에서 묻힌(?)을 고르고 있는 학생의 모습

토끼와 거북이는 왜 땅에서만 달리기를 해야 하는가? 만일 바다에서 달리기를 했다면? 모르긴 해도 토끼한테 목숨이나 제대로 붙어 있을지 의문이다.

대학이 더이상 진리 탐구의 장이나 학문과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는 곳만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요즘에도 이상하게 사람들은 대학은 뭔가 다를 거라고 믿는다. 그래서 가끔 대학안에서의 성폭력이나 성추행 사건들이 드러나면 설마 대학안에서 그런일이? 교수가 학생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어떻게 그랬겠나? 라고 놀란 표정을 짓는다. 숯게 그것을 하나의 가십거리로 다루거나 피해자 개인의 부주의나 고의로 보기도 한다. 94년 서울대 우조교 사건도 학내에서 단순한 가십거리로 전락. 우조교의 평소행실을 문제 삼거나,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러냐는 등의 반응이 많은 수를 차지했다. 심지어 여자가 부끄러움조차 모르고 자기 치부를 드러내라는 의견을 보인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한 개인의 엄청난 심리적 고통과 고통속에 힘들게 낸 소중한 용기를 하나의 가십거리로 치부해 버리는 공간. 그러나 이제 그동안 대학에 쏟아 부었던 온갖 미사여구는 그만 접어두기로 하자. 이렇게 까지 단호히 말하는 이유는 부풀려진 대학의 모습이 아니라 벌거숭이 대학을 직면했을 때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싶어서다.

대학 속의 성문화를 다룬다면서 처음부터 굳이 성폭력을 들먹거리는 이유는 우리의 성문화가 문화와 폭력이 구분까지 않을 정도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이라면 성개방 운운하며 마치 이 사회에 성이 자연스럽게 회자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철저히 현실적인 인식에서 출발하는 편이 옳다. 남학생들이 성경험이 있는 여성과도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다고 말할 만큼 개방적으로 변했다고 해서 대학내에서 마치 성의 평등과 자유가 이루어졌다고 속단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성문화란 단지 남성과 여성이 만나 사랑하고 성교를 나누는 과정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그렇게 단순한 공간도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특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것보다 전체적인 집단 속의 여성과 남성, 혹은 타인으로서의 여성과 남성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작년 봄이던가? 흐드러지게 핀 벚꽃잎이 막 떨어질 무렵이었던 것 같다. 정경대 대자보 판에는 경제 학과 한 여학생의 성토에 가까운 대자보가 실렸다. 사연인즉 학생회실이 더러운 것을 본 남자 복학생이 후배 여학생들에게 '못생긴 얼굴에 아까운 화장품 낭비하지 말고 그럴 시간 있으면 과실 청소나 해라'고 적힌 종이를 과실 게시판에 붙여 놓은 것이다. 이 사건은 당시 시험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론을 일으켜 대학내 여학생과 남학생의 본질적인 갈등문제로까지 이어졌다. 어떤 복학생은 정경대에 여자들이 많이 와서 정경대 수준이 떨어진다는

원색적인 주장을 하기도 했고 어떤 여학생은 남학생들은 공부도 못하고 성실하지도 못하면서 여학생들의 취직자리를 빼앗아 간다. 도대체 뭐가 잘못났나?며 따져 들기도 했다. 그리고 1년 남짓 지난 지금, 캠퍼스는 다시 예로 비디오를 찍은 여학생의 복학문제로 뒤숭숭하다.

슈퍼 빼빼루 라는 예로 비디오를 찍은 이 학생에게 소속과 교수님들은 다시 휴학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 복학하면 너 때문에 학교가 소란스러울 수 있으니 한 학기만 더 참으라는 말일까? 아니면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 어떻게 예로 배우가 다닐 수 있느냐는 뜻인가? 더불어 말하자면 학교 주변 비디오 가게에는 이 비디오를 찾는 남학생들이 줄을 섰다고 한다. 도대체 무엇이 더 도덕적인가? 예로영화 출연과 예로영화를 보는 것이 도덕적 차별성을 가지는가.

이 일은 유교 사회로서 한국 사회가 가지는 이중적 성규범을 그대로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숨어서 하는 것은 되지만 나 서면 안되고 정말로 어떤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이느냐가 우선인.

그 이중적 잣대는 여대생의 어정쩡한 위치에서도 드러난다. 하여튼 우리나라 여대생들은 비싼 화장품값을 들여 자신을 한껏 치장해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차려입고 도서관에도 다녀야 한다. 또 성에 대해 무지해야 하면서도 비밀비제한 성 추행이나 성적 농담에는 센스있게 대처할 줄 알아야 한다. 만능 텔레트가 되지 않거나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라고 순진한 표정을 짓지 않으면 비집고 살아가지가 정말 만만치 않다. 물론 모든 여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여학생들은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잘 살아간다. 언제나 그렇지만 성적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이해 관계가 구체적으로 얽혀있지 않은 문제에 민감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연세대 조혜정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90년대의 여학생들은 '철저하게 소비 자본주의 시대가 원하는 여자'로 분장하여 살길을 모색하거나 실력사회에 승부를 걸고 프로가 되기로 결심하는 전략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나 그 선택이 아무리 남는 장사라 하더라도 우리의 논의에 하등의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우리의 목표는 백인사회에서 성공한 흑인으로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흑인들이 백인과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군대가기 전에 '꼭 따지를 떼고 가야 한다'는 대한민국의 청년들, 사랑이 없는 섹스로 자신의 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짐작들을 위해서도 이로운 일이다.

이제 토끼와 거북이의 경우는 꼭 두 번 열자. 산과 바다에서.

<최수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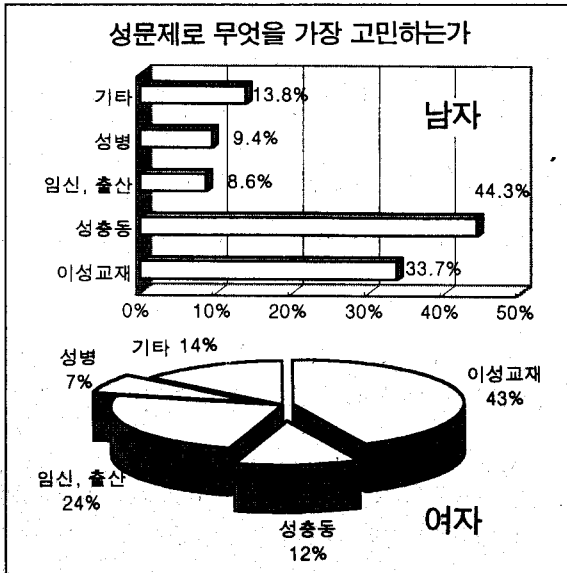
성의식 설문조사

성의 개방화 추세에 따라 날로 상품화되어가는 우리의 성의식을 알아보고, 바람직한 성문화를 모색하기 위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서울, 수원캠퍼스 1백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서울, 수원캠퍼스 모두 전체 남녀비율에 맞추어 조사했다. 서울캠퍼스의 남녀 성비율은 6:4이고, 수원은 7:3이다. <편집자>

대부분의 학생들 성에 개방적

전통사회에서 우리민족은 유교사상의 영향을 받아 성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미덕이며, 되도록 모르는 제하는 것이 순결하고 고상한 것이었다. 이와같은 태도는 성의 자연스러움보다는 성의 도덕성에 관점을 두게 했으며 부도덕한 것으로 보는 편견을 갖게 하였다.

그러나 요즘세상은 어떠한가. 외래문화를 무분별하게 수용한 탓으로 그들의 모습을 따라 하는 것이 유행이 되어 버렸다. 성에 대한 학생들의 의식도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성에 대한 인식이 무섭게 바뀌어 가고 있다. 남녀가 만났지 못일도 안되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심지어는 몸까지 허락한다.



□ 쉬-쉬 마스터 샵 대표 김덕원씨

성을 이해하는 풍토 조성돼야

문화적 수준은 높아졌지만 학생들이 아직 성에 대해 터부시 하는 경향이 있다. 외국의 경우 성을 기피하는 경우는 드물다

우리나라는 유교사상의 영향이 많이 남아있는것 같다. 지금은 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지만 좀더 개방적인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에 대한 호기심은 섹스샵을 낳았다. 그동안 후미지고 골목진 곳에 있다는 섹스샵 이야기를 간간히 들어왔지만 이제 굳이 쉬쉬하며 애써 찾아갈 필요는 없었다. 우리학교 앞과 한국의국어대학 앞에 섹스샵이 두군데나 생겼으니 말이다. 회기역 앞에 자리잡은 쉬-쉬 마스터샵 대표 김덕원씨를 찾아보았다.

주로 찾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대체로 오는 사람들은 아저씨들이다. 학생들 경우에는 복학생이나 3,4학년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주로 성에 대해 어느정도 인식이 되어 있어 오는 것 같다. 그외에 학교앞에서 하숙하는 학생이나 고시생들도 가끔 온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40대 중반의 여성들도 많이 오게 되었다. 그때는 조금 놀라기도 했다. 찾는 사람의 대부분이 애인이나 친구들의 생일선물을 사기 위해 오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의 성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무간으로 청소년들을 제한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우선 지성인들이

모범을 보이고 성에 대해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 최근들어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억압하고, 공부만 강요한다면 그것이 바로 탈선의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나 생각한다.

사회에서도 청소년 보호법을 만들어 그들을 담장에 옴매이는 것보다는 인생의 선 경험차로서 이해하는 풍토가 먼저 조성되어야 한다. 특히 성교육의 문제는 무조건 터부시하지 말고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가르친다면 지금과 같은 성폭력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거란 생각을 많이 했다. 그리고 우리국가에서는 청소년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말썽이, 너무 많아 미리 주민등록증을 검사하곤 한다.

성인삽을 하계된 동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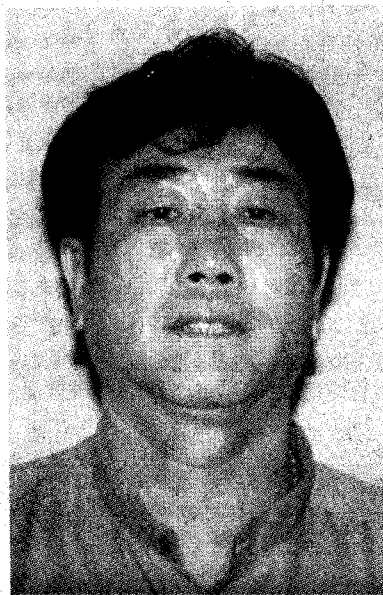
특별한 이유는 없다. 처음 주위사람들이 신종사업이고 수익도 좋다고 해서 할만하다고 생각했다. 사실 가까운 일본은 25년 전부터 시작해 지금은 널리 퍼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 사업이 들어섰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리 익숙치는 않다고 생각한다.

성에 대한 신종사업인 만큼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흔히 섹스라고 하면 일상생활에서 거부감을 갖기 마련인데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생각하면 터부시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문화적 수준은 높아졌지만 학생들이 아직 성에 대해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다. 외국의 경우 성을 기피하는 나라는 드물다. 우리나라는 유교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다. 지금은 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지만 좀 더 개방적인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런 성인삽을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았으면 한다.

가끔 여기에 들어오기를 꺼려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럴때는 아직도 성에 대한 문화적 인식이 열악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사실 부끄러울게 하나도 없다. 이런 성인삽이 계속적으로 확산되어 꾸준히 자리잡혀가고 학생들의 반응도 좋았으면 하는게 바람이다. <김동혁기자>



사회에서도 청소년 보호법을 만들어 그들을 담장에 옴매이는 것보다 인생의 선경험차로서 이해하는 풍토가 먼저 조성돼야 한다